

교사용

한 학기 한 권 읽기

『오늘도 조이풀하게!』

독서 지도안



작성 |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이 독서지도안은 책이라는신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gira_22

책 소개

“인생이든 대결이든 기세가 중요해!”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
힘차게 내딛는 용기 있는 발걸음



눈이 오는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생인 조이는 엄마를 따라 갑자기 무천시로 이사를 가게 된다. 엄마의 고향, 무천시. 조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외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돌볼 사람이 필요했고, 엄마가 상의도 없이 무작정 이사를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름도 잘 모르는 할머니의 집이라니. 거기다가 편의점도 없는 촌 동네라니. 조이는 학교도 친구도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태권도, 합기도, 킥복싱까지 안 배운 운동이 없을 만큼 걸으로는 씩씩하고 강인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단단한 방패를 항상 들고 산다. 마음에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조용히 학교에 다니고 싶었는데…… 전학 첫날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이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는 것도 모자라서 옆집에 사는 별, 친화 부장 수현이 자꾸만 곁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휘말리게 된 사건! 베일에 싸인 가족의 비밀까지 알게 되는데…….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쪽수
1	독서 전	<p>이야기 상상해 보기</p> <p>『오늘도 조이풀하게!』 이야기의 첫 문단을 읽고 내용 추측하기</p>	4
2	독서 중	<p>1부. 내 비밀의 문</p> <p>요약 정리하기</p>	5
3		<p>2부. 진실의 열쇠를 찾아서</p> <p>요약 정리하기</p>	6
4		<p>3부. 오늘도 조이풀하게!</p> <p>요약 정리하기</p>	7
5		<p>감상 공유하기</p>	8
6~7		<p>이야기의 중심, 인물들</p>	9~12
8	독서 후	<p>이야기 속 소용돌이, 사건</p>	13
9~10		<p>이야기 속 우리 사회 이야기</p>	14~15
11~12		<p>연계 활동: 우리가 만드는 영화</p> <p>1. 영화 제작 계획서 작성하기</p> <p>2. 스토리보드로 정리하기</p> <p>3. 우리의 영화 상영제 - 영화 제작 후 평가하기</p>	16~18

1. 『오늘도 조이풀하게.』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책에서 발췌한 <보기> 내용을 보고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보기>

정말이지 어른들은 너무 제멋대로야. 나는 환김에 낡은 갈색 나무 대문을 내동댕이치듯 세계 닫았다. 매끄러우면서도 묵직하게 닫히는 아파트 철제 현관문과 달리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는 나무 문은 힘없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닫히다 말았다. 이게 뭐야? 불현듯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대문 아귀가 잘 맞지 않으면 달을 때 두 손으로 끝까지 밀어서 닫아야 한다고.

나는 한숨을 쉬며 들고 있던 텀블러를 바닥에 내려놓고 대문을 끝까지 밀어서 닫았다. 가까스로 철컥 소리가 났다. 손에서 쇳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손바닥을 탁탁 털다가 무심코 대문 위에 달린 검은 문패를 봤다.

한우현

얼굴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 엄마의 아빠. ‘조이’라는 내 이름에 한씨 성을 물려준 것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 구려, 구려. 이 집도 구리고, 대문도 구리고, 문패도 구리고, 다 구리다. 나는 텀블러를 다시 집어 들었다. 환김에 뛰쳐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지? 대문 앞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는데 앞집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 문인 이 집과 달리 앞집은 초록색 철제 대문이었다. 번호 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건 똑같지만 비교적 새것으로 깔끔했다. 갈색 나무 문패에는 검은색으로 ‘김승헌과 김별의 집’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김별? 어쩐지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가 있을 것만 같다.

그 이름을 보고 있으려니 아까 엄마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삿짐 트럭을 따라올 때 지나쳤던 놀이터가 떠올랐다. 나는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로 걸어 나갔다. 머리 위로 검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아까부터 소리 없이 내리던 눈은 어느새 그쳤다. 이사 오는 날 눈이 오면 잘 산다고 엄마가 기뻐했는데. 사람도, 차도 없는 거리는 조용했다. 서울에선 한 블록마다 있던 편의점도 없었다. 역시 촌 동네.

- 『오늘도 조이풀하게.』 중에서

- ① <보기>의 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봅시다.

- 주인공의 이름은 ‘한조이’이다.
- 주인공 ‘조이’는 엄마의 성을 물려받았다.
- 조이와 엄마는 조이의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이사 왔다.
- 주인공 ‘조이’가 이사 온 집 근처에는 ‘김승헌’과 ‘김별’이 살고 있다.
- 주인공 ‘조이’는 이름도 집도 모든 게 구리다고 생각한다
- 주인공 ‘조이’는 서울에서 이사 온 사실 자체가 짜증 난다.

- ②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인공 ‘조이’와 이야기에 대해 추측해 봅시다.

- 조이가 엄마의 성을 물려받은 것을 보아, 아마 조이에게는 아빠와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 조이의 예상과 달리 ‘김별’은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아니라 비슷한 또래일 것 같다.
- 조이의 이웃집에 사는 김승헌 씨와 김별은 부자지간일 것이다.
- 이 이야기는 조이가 텀블러를 들고 무작정 가출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다.

지도 tip

- 정답이 없으니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해당 내용을 책을 읽고 난 뒤 학생들과 비교해 보고 가장 가깝게 추측한 학생에게 상품을 주는 활동으로 연계하여도 좋습니다.

1. 『오늘도 조이풀하게!』의 1부 ‘내 비밀의 문’을 읽고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봅시다.

- ① 조이의 외할아버지는 조이와 만난 적도 없지만, ‘조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 (O X)
 > 근거: ‘엄마의 아빠. ‘조이’라는 내 이름에 한씨 성을 물려준 것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이라 표현하며 조이의 이름은 외할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조이의 이름은 엄마가 지어 주었다.
- ② 조이가 이사 온 집은, 엄마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이다. (O X)
- ③ 이사 온 날, 짜증이 나는 마음에 놀이터로 도망친 조이는 우연히 이웃집에 사는 (㉠ 김별)을 만나게 된다. 줄넘기를 열심히 하던 (㉠ 김별)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아이는 조이의 텀블러에 담겨 있던 (㉡ 소주)를 마시게 된다. 조이는 치명적인 비밀을 들켜 버린 것 같아 충격을 받고, 이렇게 (㉠ 김별)과의 첫 만남은 마무리된다.
- ④ 수현이를 처음 본 조이는, 수현이가 (㉠ 푸바오)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수현이는 (㉡ 친화 부장)으로서 전학 온 조이에게 학교에 대해 안내해 주었다. (㉡ 친화 부장)은 반 내에서 누군가 겉돌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조이를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였고, 왜 따라왔나요?
 (건우, 조이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 ⑥ 마당 공사가 끝난 뒤, 엄마가 멜론 플레이트에서 찾았다는 식당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별이네)
- ⑦ 별이는 조이와 조이의 엄마에게 삼촌이 개발한 고구마 피자를 추천해 주었다. (O X)
 > 고치기 : 시금치 피자를 추천해 주었다.
- ⑧ 조이는 엄마가 처음 만난 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랑은 종종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낄 때도 많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 억울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엄마는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엄마’는 어떤 엄마를 말하는 건가요?
 > 피부색이 다른 별이를 보며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선부른 짐작을 하지 않는 엄마
 근거: ‘별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선부른 짐작도 하지 않는 엄마. 우리 집이 그렇듯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사연이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
- ⑨ 점심을 먹고 시장에 방문한 날, 조이의 엄마는 우연히 마주친 (김태현) 의원을 보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조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엄마의 과거와 (김태현) 의원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 ⑩ 조이가 텀블러에 소주를 담아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9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9장의 사건으로 조이가 느꼈을 ‘감정’과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정리한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오늘도 조이풀하게!』의 1부를 읽고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1. 『오늘도 조이풀하게!』의 2부 ‘진실의 열쇠를 찾아서’를 읽고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봅시다.

- ① 엄마와 김태현 의원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였고, 조이는 엄마가 시장에서 도망치듯 가 버린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O X)
- ② 조이는 2년 전에 지아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수현이의 솔직한 표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 (O X)
- ③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던 도중, 건우는 실수로 별이에게 공을 세계 던졌다. (O X)
> 고치기 : 건우는 일부러 별이를 맞추려는 마음으로 공을 던졌다.
- ④ 조이의 책상에 딸기우유를 두고 갔던 사람은 건우였다. (O X)
> 고치기 : 건우에게 물어봤지만, 딸기우유를 두고 간 사람은 건우가 아니었다.
- ⑤ 독감에 걸린 별이의 병문안을 간 조이가 우연히 본 스케치북에는 어떤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나요?
(모델 씨니(별이의 엄마)와 유리)
- ⑥ 조이는 별이의 병문안을 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승헌 삼촌의 소울메이트 (㉠ 훈이 삼촌)을 마주쳤다.
(㉠ 훈이 삼촌)은 (㉡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 ⑦ 조이가 마감을 마친 엄마와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별이의 병문안을 갔다가 본 스케치북 속 유리의 그림을 보고 (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이다 / 마음이 싱숭생숭해졌기 때문이다. 등)
- ⑧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속에서, 김태현 의원은 엄마를 어떤 감정으로 바라봤던 것일까?
> 자유롭게 상상하여 작성해봅시다.

지도 tip 뒷이야기 예측 활동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 ⑨ 선거 캠프의 야외 일정으로 캠프에 가지 않게 된 조이는 수현이와 별이를 놀라게 해 주려고 편의점에서 (제로 콜라)와 (탄산수)를 사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옥상 출입문을 열자 (유리)가 수현이의 뺨을 후려쳤고, 진오는 별이의 먹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진오는 건우에게 (별이가 그린 유리의 그림)을 보여 주며 도발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모두 싸우게 된다.
- ⑩ 옥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듣고 난 후, 조이의 엄마는 왜 ‘잘했어’라고 말했나요?
>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다친 것은 속상한 일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와 친구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2. 『오늘도 조이풀하게!』의 2부를 읽고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지도 tip 요약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위의 내용 확인 질문을 활용해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오늘도 조이풀하게』의 3부 ‘오늘도 조이풀하게’를 읽고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봅시다.

- ① 아이들은 조이를 보며 (㉠ 옥상 대첩)의 주역이라며 수군거렸다. 오랜만에 만난 (㉡ 수현)은 무슨 일인지 자꾸만 조이를 외면했다. 그런 (㉢ 수현)의 모습을 보고 걱정된 조이는 전화, 카톡, 문자를 보내 보았지만 (㉣ 묵묵부답)이었다.
- ② 조이는 왜 별이의 병문안을 가기 전, 건우가 입원한 병원에 먼저 들렀나요?
> 건우가 조이 대신 맞고 이틀간 의식불명이 되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 ③ 비공개회의 전, 수현이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음악실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유리의 엄마)
- ④ 비공개회의에서 유리, 진오, 수현이의 진술과 조이, 별의 진술은 어떤 점이 달랐나요?
> 유리, 진오, 수현은 ‘유리와 건우가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와 있었던 상황에서 조이가 갑자기 나타나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했다’고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조이를 가해자로 몰며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했다.
- ⑤ 건우와 별이는 왜 양숙이 되었나요?
> 피부색이 달라 학교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던 별이에게 건우는 먼저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고, 그날부터 둘은 친구가 되었다. 5학년이 되던 때 건우는 별이에게 함께 수영부에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둘은 함께 수영을 하게 되었다. 힘들었던 훈련도 친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별이의 기록이 건우의 기록을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별이는 혼나는 건우의 모습을 보며 수영을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건우는 오해가 쌓여 화가 났고 둘은 양숙이 되었다.
- ⑥ 조이는 엄마와 다툰 후 집 밖으로 뛰쳐나와 무작정 산책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O X)
> 고치기 : 별이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함께 승헌 삼촌이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 ⑦ 외할머니를 만나고 온 뒤, 조이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혹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팠다. 엄마가 김태현 의원을 보던 눈빛이 놀라움이 아닌 경악, 두려움, 증오와 원한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⑧ 엄마를 다치게 한 범인은 이훈 보좌관이었다. (O X)
> 고치기 : 엄마를 다치게 한 범인은 유리였고, 이훈 보좌관은 유리의 할아버지에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범인인 척 현장을 조작했다.
- ⑨ 수현이는 사실 건우가 조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는 마음에 거짓말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O X)
> 고치기 : 수현이가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이유는 오빠의 무천 건설 장학금 때문이다. 이 장학금은 유리 외 할아버지의 회사 무천 건설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유리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하지 않으면 오빠가 장학생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
- ⑩ 별이는 왜 유리를 그렸나요?
> 별이의 장래 희망이 웹툰 작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를 그려 보고 연습하기 위해서 유리를 그렸다.

2. 『오늘도 조이풀하게』의 3부를 읽고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인상 깊었던 내용과 공감한 내용, 기억에 남는 책 속 한 문장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봅시다.

	내용	선정 이유
인상 깊었던 내용과 공감한 내용	페이지: 176쪽 (해당 부분 필사) “한조이. 칫솔로 유전자 검사한 거,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 나는 돌아서서 유리를 봤다. “아니, 전혀 궁금하지 않아. 난 너처럼 가문의 후광 따위 받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 한정연 씨의 딸로 충분하고.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조이가 자신의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멋진 새출발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상 깊은 내용으로 선정했다.
	페이지: (해당 부분 필사)	
기억에 남는 책 속 한 문장	페이지: (해당 문장 필사)	
책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지도 tip

-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난 뒤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의 내용을 채우고 조별로 혹은 학급 전체 학생과 내용을 감상 내용을 공유해 보세요. 해당 표의 내용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상을 친구들과 편안히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 하나의 작품을 감상할 때, 다양한 관점과 감상이 있다는 것을 지도해 주세요.

1. 인물의 모습과 성격이 묘사된 부분을 읽고, 한 명씩 한 문장의 내용을 맡아 인물의 모습을 상상해 그려 봅시다.

진행 방법

- ① 조별로 종이를 한 장 받습니다.
- ② 조원이 돌아가며 한 문장씩 읽고 해당 문장에 해당하는 인물 묘사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 ③ 한 명씩 돌아가며 문장을 모두 하나의 그림에 표현하고, 완성된 그림을 보며 아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니다.

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지간한 여고생치고는 키가 큰 나를(원래는 172센티미터이지만 누가 물어보면 항상 169라고 깎아서 대답한다) 이래 봐도 태권도, 합기도를 거쳐 킥복싱 도장에 다니면서 운동한 지 무려 5년 차. • “키도 모델처럼 크고 날씬하고.” (수현) • “우리는 아이돌처럼 예쁘지만, 넌 독립 영화 주인공 같은 분위기가 매력이지.” (수현) • “너의 그 크고 동그란 눈, 짙고 귀여운 턱, 날렵한 발차기.” (김별)
김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충 봐도 180센티미터는 우습게 넘을 듯한 키에 야구 모자를 쓴 그는 기린처럼 날씬했다. • 끝이 동그랗고 몽툰한 코, 까만 피부. • 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눈처럼 크고 맑은 눈. • 게다가 저 색다른 그림체는 LA나 뉴욕 같은 도시에 있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정말 잘생겼어! • 엄마가 좋아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에게 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외모와 달리 한국어는 나보다 더 유창했다.
수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현이란 아이는 요즘 에버랜드에서 인기 폭발인 귀여운 판다 푸바오와 아주 많이 닮았다. • 키가 작고 포동포동한 체격에 눈도 동글, 코도 동글, 얼굴도 동글. • 심지어 가는 은테 안경테까지 동그란 게 굉장히 순하고 귀여워 보이는 인상이다. • 하지만 푸공주인 수현은 싹싹하고 친절해 보인다. • “난 노래 부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 수현이 갑자기 수줍어했다. 와, 이건 푸바오가 워투우나 당근 볼 때 짓는 표정인데. 정말 노래가 좋은가 봐.
건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호성의 주인공은 아마도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남자아이 같았다. • 건우는 마치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를 보는 것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날 보고 있었다. 어쩔 저렇게 권태로운 인상일까. • 야구 농구대 앞에서 덩크슛을 날려 아이들이 환호할 때도 마치 군중 속에 혼자 있는 것처럼 쓸쓸해 보였다. • 강아지를 잡아서 안도했는지 건우는 활짝 미소 짓고 있었다. 어라, 그렇게 웃으니 꽤 잘생긴 얼굴이군. 유리와 수현이 난리 칠 만하구나. •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너도 건우가 중학교 때까지 수영 선수였던 건 알지?” 어쩐지 어깨가 장난 아니게 넓더라니. 지난번 골목에서 본 건우의 반응으로 짐작했기에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때 같은 여자가 봐도 위태위태하게 짙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가 건우에게 물병을 내밀었다. • 야구 담임 옆에 서 있을 때 유달리 하얀 피부에 서구적인 이목구비가 오목조목 예뻐서 시선이 갔었다. • 배우 지망생이라는 유리는 볼수록 예뻐다. • 다만 배우나 아이돌 연습생 중에서도 종종 폭력이나 왕따 스캔들로 유명한지는 그런 앙칼지고 새침한 인상이랄까. • 모두의 관심을 독차지해야 만족하는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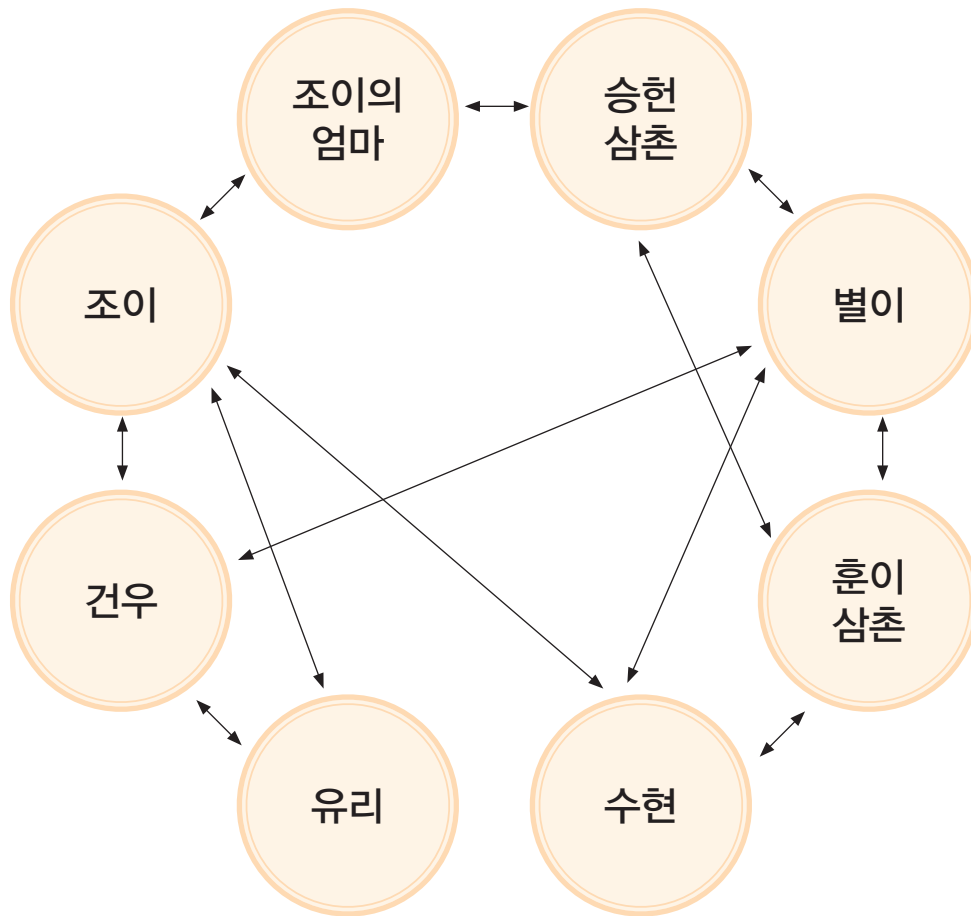
인물 상상화 이어 그리기 칸

인물의 이름	
인물에 대한 소개 (인물의 성격, 직업, 특징 등을 정리하며 책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질문. 함께 생각해 보기

- ① 인물을 상상하며 이어 그리기 활동을 하고 난 후, 완성된 그림은 나의 상상과 비슷한가요?
- ② 조원들이 적어 놓은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현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나요? 잘 표현한 점 혹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했는지,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

2. 『오늘도 조이풀하게.』의 인물 간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3. 위에 정리한 인물 관계도를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① 『오늘도 조이풀하게.』는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인물들은 사건을 통해 각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각 관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적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각 관계의 정의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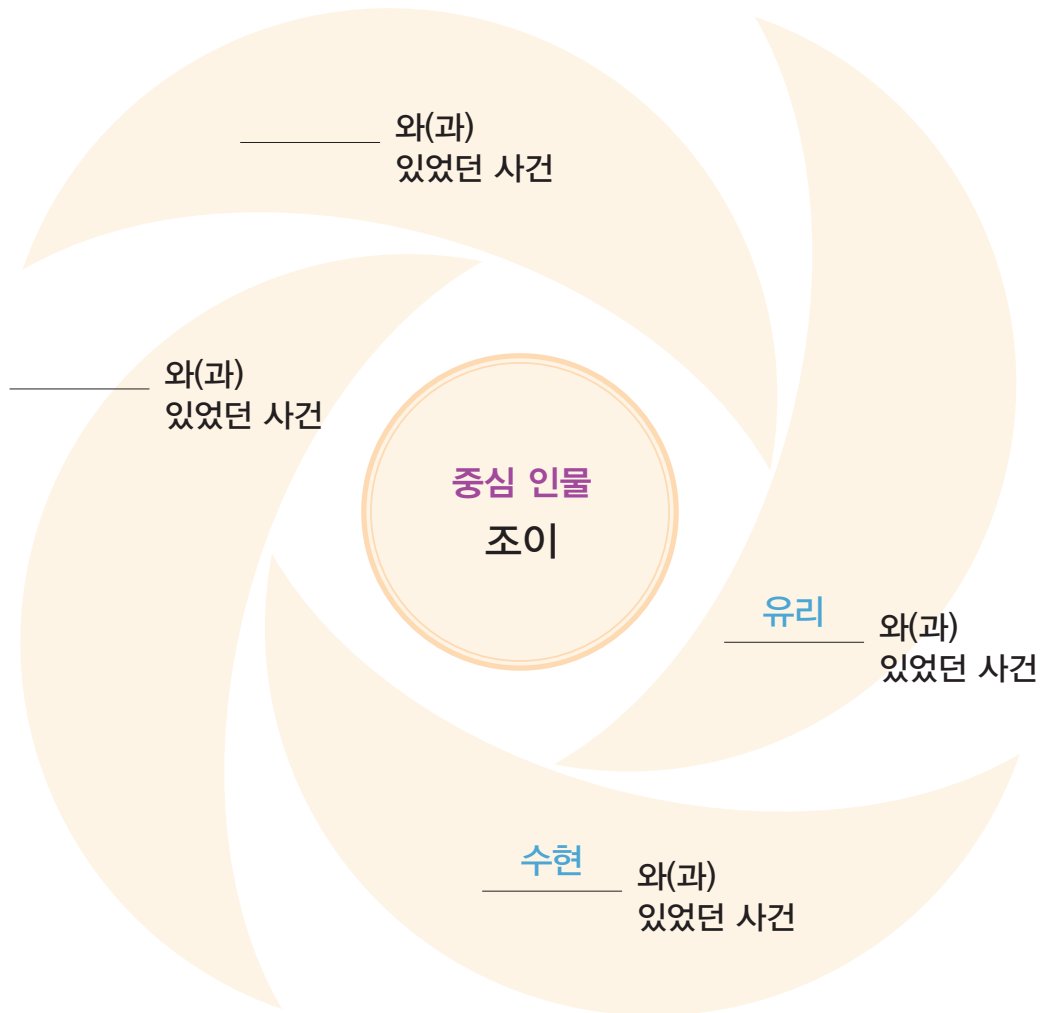
<p>친구</p>	<p><친구의 사전적 정의> 가깝게 오래 사귀는 사람 (참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p>	<p><나에게 '친구'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를 대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 • 내가 가진 간식을 나누어 먹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p>가족</p>	<p><가족의 사전적 정의>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p>	<p><나에게 '가족'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사람 • 서로의 사소한 습관까지 공유하며 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관계

지도 tip 각 관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직접 검색하여 정리해 보세요.

② 『오늘도 조이풀하게!』에서 친구 혹은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운을 준 부분이 있나요? 해당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을 기록하고, 함께 ‘관계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적어 봅시다.

인물	관계	책 속 내용 기록하기	내가 만든 질문과 질문을 만든 이유
예시) 건우와 별이	친구	<p>“5학년 때 건우가 수영부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건우를 따라 들어갔어. 건우랑 같이하는 거라면 뭐든 좋았어. 건우 때문에 지옥 같은 훈련도 버텼고. 근데 어느새 내 기록이 건우 기록을 추월했고, 그러면서 건우가 점점 힘들어진 것 같았어. 어느 날 건우가 탈의실에 놓고 간 수영모를 갖다주려고 건우네 집에 간 적이 있었어. 대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 마루에서 건우가 할아버지한테 회초리로 맞고 있었어. 그깟 감동이 하나 못 이겨서 동네 창피하게 만든다고. 평소에도 나랑 같이 놀지 말라고 할아버지에게 혼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내 안의 뭔가가 툭 끊어지더라고.”</p> <p>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갔다.</p> <p>“그때부터 수영 훈련을 빠졌어. 결국 단체전에도 안 나갔고. 무책임한 짓이었던 거 알아. 건우는 이유를 모르니까 단단히 화가 났고. 난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없었고. 뭐, 그렇게 꼬인 거지.”</p>	<p>질문) 내가 별이라면, 오해가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등)</p> <p>질문을 만든 이유) 건우와 별이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속마음을 서로에게 비추지 않아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p>

1. 『오늘도 조이풀하게』 이야기 속 사건의 소용돌이를 정리해 봅시다. 조이와 친구들 그리고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시 1) 유리와 있었던 사건

옥상 사건 중, 건우가 조이를 대신해서 막대기를 맞자, 유리가 조이의 뺨을 때렸다. 옥상 사건 때문에 열린 학교 비공개회의에서 김태현 의원(유리의 아빠)이 조이와 조이의 엄마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고, 그 때문에 유리는 조이의 유전자 검사를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이의 엄마가 크게 다치게 되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유리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둘은 면회를 통해 서로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눈다.

(예시 2) 수현과 있었던 사건

수현이가 유리에게 맞게 된 ‘옥상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이유는 모르지만 수현이는 조이에게 거리를 두고 조이는 그 이유를 몰라 답답해 한다. 사실 수현이는 무천 건설에서 장학금을 받는 오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리와 같은 증언을 했고, 계속 마음이 쓰였던 나머지 유리 엄마가 조이를 때리는 영상을 찍고 폭로하게 된다. 수현이와 조이는 서로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 뒤, 다시 좋은 친구 사이가 된다.

지도 tip 소용돌이를 바탕으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며 더 넓혀 가도 좋습니다. 해당 소용돌이 이미지는 최소한으로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입니다.

아래의 글은 조이가 전학을 온 첫날 친화 부장 수현이와 조이가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을 발췌한 것이다.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니, 영국에는 실제로 그런 장관이 있는 것일까?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고 질문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조이라니, 이름 정말 예쁘다. 외국인이나 교포 같기도 하고. 혹시 세레명이야?”

음, 이 질문을 들은 지가 백만 스물두 번째던가. 뭐, 아무튼 수현에겐 처음이니 나도 처음 들은 것처럼 대답해 주는 게 예의겠지.

“아니. 난 무교야. 엄마가 지어 주셨어.”

“오, 너희 엄마 감각 있으시다.”

“그런데 친화 부장이란 건 뭐야?”

내 이름에 이어 달갑지 않은 호구조사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질문을 던졌다. 질문엔 질문으로 맞서는 게 좋은 전술이지.

“아, 그건 우리 쌤의 개똥철학이야.”

수현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점점 모를 소리만 한다. 철학이라니. 소크라테스, 니체, 뭐 이런 건가?

“우리 쌤은 ‘우리 반에선 절대 왕따나 은따는 없다’는 게 신조거든. 스파까진 어쩔 수 없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누구도 걸돌거나 외로워하지 않도록 친화 부장이란 자리를 만들었어. 영국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고 우리 반에는 친화 부장이란 게 있지. 3개월에 한 번씩 아이들이 투표로 뽑는데, 이번엔 내가 뽑혔어.”

— 『오늘도 조이풀하게!』 중에서

▶ 참고 영상 자료 ①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1093100797>



▶ 참고 영상 자료 ②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894&ref=A>



질문 1. 외로움 담당 장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지도 tip 해당 질문은 위의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질문 2. 사회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도 tip 해당 질문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방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질문 3.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질문 4. 외로움과 고독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학교에서 노력할 점:

사회에서 노력할 점:

지도 tip 해당 질문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방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오늘도 조이풀하게!』는 학교를 배경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조이와 친구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는 부분을 선정하여 스토리보드로 정리해 보고, 짧은 영화를 제작해 봅시다.

1. 영화 제작 계획서 작성하기

() 모둠, 『오늘도 조이풀하게!』 영화 제작 계획서		
모둠 구성원		
선정한 내용	()쪽 해당 내용 필사	
해당 내용의 선정 이유		
영화 제작 일정	날짜(촬영 및 편집 장소는 수업 시간과 학교 내의 장소 활용)	해야 할 일
	첫 번째 시간 (월 일)	
	두 번째 시간 (월 일)	
역할 분담 (연출에 대한 부분은 조원 모두가 참여)	연기자	담당 학생
	편집자	담당 학생

2. 스토리보드로 정리하기

장면 번호	장면	장면 내용 세부 설명 및 준비물	오디오
	그림으로 표현하기		효과음 배경음악 등

3. 우리의 영화 상영제

조별로 영화를 제작한 후, 조별로 정리한 스토리보드와 영화를 상영하여 함께 영화제를 즐겨 봅시다.

① 스스로 평가하기

나의 역할	
나에게	나에게 칭찬해 주고 싶다!
	아쉬운 점 혹은 보완하고 싶었던 부분?
영화 작품에게	영화, 이 부분 잘 만든 것 같다!
	아쉬운 점 혹은 보완하고 싶은 부분?
배우고 성장한 점	

② 우리도 영화 평론가(상호 평가하기)

모둠 이름	평점	영화로 표현한 내용 요약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줄 평: • 잘한 점: •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줄 평: • 잘한 점: •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줄 평: • 잘한 점: •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줄 평: • 잘한 점: •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줄 평: • 잘한 점: • 아쉬운 점: